

개성공단, 화학공장 용지 분양 박차

토공, 화학·고무·플라스틱 산업 대상 ... 입주시기는 2007년 상반기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1단계 본단지 210개 필지 57만3000평에 대한 분양을 6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분양되는 토지는 일반 공장용지 35만2000평을 비롯해 소규모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2만4000평, 협동화단지 4만평, 공단 조기활성화 등을 위한 선도기업용지 6만평, 외국기업용지 4만평, 지원시설용지 5만7000평 등이다.

분양업종은 섬유·봉제·의복·가죽·가방·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기계·금속·전기·전자 및 화학·고무·플라스틱산업이다.

분양은 3단계로 나누어 일반 공장용지와 아파트형 공장용지는 6월에, 협동화단지는 3/4분기에, 잔여 일반 공장용지와 선도기업용지는 4/4분기에 각각 진행되며 입주시기는 2007년 상반기이다.

토공은 발표한 분양계획을 토대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5월 전국 5대도시에서 순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조만간 1차 분양 공고 이후 분양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07>